

제 155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일시: 2013년 2월 20일(수) 14:00-16:00

장소: 서울대 국제대학원 412호

강연자: 강해수(일본 국제기독교대학 아시아문화연구소)

주제: 근대일본의 '타자'인식으로서의 중국관: 쓰다 소키치와 다치바나 시라키의 '왕도'담론을 중심으로

<개요>

제 155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가 2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제대학원 일본연구소 세미나실(412호)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아시아문화연구소 강해수 교수가 '근대일본의 '타자'인식으로서의 중국관: 쓰다 소키치와 다치바나 시라키의 '왕도'담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해수 교수는 제국 일본이 그 지배 지역을 확대해가면서 천황을 중심의 국제론이 타자,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가의 문제를 유교의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와 다치바나 시라키(橘樸)에 초점을 맞춰 두 인물의 왕도 담론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흐름을 보여 주었다.

쓰다 소키치가 중국의 '왕도 정치사상'을 입헌정치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타자로서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면, 다치바나 시라키는 왕도를 적극적으로 논하면서도 일본의 '황도(皇道)'를 중국의 왕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포착했다. 달리 말하면 그의 논의는 광의의 왕도 안에 협의의 왕도로 황도를 정의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다치바나는 만주국의 건국정신인 '왕도낙도'도 그러한 일본의 황도와 유기적인 정신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원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 및 중국의 '왕도 정치사상'을 타자화시켜 배제하는 입장을 취한 쓰다와 달리, 다치바나는 제국 일본이 만주라는 타자를 내포한 현실을 응시하면서 광의의 왕도에 포함되는 황도 개념을 통해 중국과 만주를 통합하는 제국의 질서를 구상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치바나의 황도론은 다민족제국의 현실 속에서 황도 담론이 '동아의 제민족의 맹아'로의 일본을 어떻게 정당화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일본의 아시아주의와 식민지주의의 공모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